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공지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환경선교주일 】

| | |
|---|---|
| 전 주 | 반주자 |
| 입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 경배의 찬송 | 21. 다 찬양하여라 다함께 |
| ♠ 자연신경 | 다함께 |
| <p>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며 섭리자인 하나님을 믿으며, 자연이 하나님의 품과 말씀임을 믿나이다. 우리는 만물을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자연은 사랑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나이다. 우리는 생명과 평화, 자유와 해방의 영이신 성령을 믿으며, 자연은 창조질서에 의하여 보전되고 유지됨을 믿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자연 안에 충만함을 믿으며, 자연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안내자임을 믿나이다. 우리는 녹색교회가 생명 살림의 터전임을 믿으며, 평화로운 세상을 여는 자연의 청지기임을 믿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연의 힘과 사람의 신실한 노동을 통해서 자연이 새롭게 창조 되어감을 믿나이다. 우리는 풍요와 편리를 따르는 것이 자연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연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음을 믿나이다. 우리는 자연의 붕괴가 인류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경고를 엄숙히 받아들이나이다. 우리는 자연을 착취하고 사지로 내몰았던 행태를 참회하고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녹색은총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열고 생명을 살리는 환경선교에 매진하겠나이다. 아멘.</p> | |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 빌4:6-7 인도자 |
| ♠ 교 독 문 | 113. 자연과 환경 다함께 |
|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 대표기도 | I. 김서현 선생 II. 조병무 장로 |
| 응 답 송 | 찬양대 |
| 찬 양 | 242(통233).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다함께 |
| 성경봉독 | I. 막6:34-44 박민선 학생 |
| | II. 창1:12,31 마16:13-20 롬12:2 조항미 집사 |
| 찬 양 | 찬양대 |
| 말 씬 | I. 어느 밥상에 앉을 것인가 손성현전도사 |
| | II.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양재성 목사 |

- 찬 송 477.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평화로운 생명세상을 열어가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 ‘나의 일 함께 하자’고 손내미시는 주님께 응답하며 사십시오.
- 다 함 께 : 아멘. 폭력과 파괴가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며 생명과 평화의 주님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벅찬 가슴 안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집회 |
|----------|----------------|
| 동호회 | 히브리서 / 이성운 전도사 |
| | 기도 : 김정애 집사 |

| 다음 주 예배위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 김재흥 목사 | 조지연 선생 | 박제림 학생 |
| | 김기석 목사 | 한완식 장로 | 이한림 권사 |

| | | |
|----|------|-------------------------|
| 6월 | 영접위원 | 윤석철 박범희 박규석 박미영 권미숙 임영선 |
| | 헌금위원 | 김인걸 박혜경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화초 속의 주님 음성

일상의 작은 것 안에 큰 교훈이 있음을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작은 식물이 하나(덴드롱) 있었는데, 지난 겨울 들어서며 잎이 모두 졌습니다. 모든 식물이 월동하기 위해 잎이 진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는 상식이지요. 뿌리가 마르지 말라고 저는 일정 기간 계속 수분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다른 화초들에게서는 새싹이 움돋았습니다. 좁쌀알처럼 작고 파란 잎이 점점 커집니다. 빠른 식물들은 꽃도 피고 열매까지 맺었지요. 봄의 따스함에서 초여름의 더위로 옮겨가는 동안,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가로수의 잎은 무성해서 가로등의 불빛을 감춰 그 밑은 컴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화초는 전혀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4~5cm 크기의 줄기를 뿌리내려 가꾼 것이라 더 정이 들었지요. 지난해의 무성함, 보라색으로 핀 꽃의 아름다움이 더욱 눈에 아른거립니다. 겨울을 나는 동안 관리의 어느 부분에 잘못이 있었는지 생각해봅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었는지, 베란다의 기온이 이놈과 맞지 않았는지, 한 겨울 환기시키려 문을 열었는데 너무 오래 열었는지, 여러 생각이 활동사진처럼 지나갑니다. 아직 싹이 안 나오는 걸 보니 죽었나? 가지에 조금 흠집을 내봅니다. 물기는 보입니다.

양지바른 곳의 개나리는 노란색으로 흐드러지게 물들었고, 번덕스런 날씨 가운데도 꽃샘추위를 이긴 여의도의 벚꽃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피고 졌고, 산의 진달래와 늦게 피는 철쭉도 피고 졌건만, 우리 집의 작은 화분은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과 안 갖는 것의 차이일까요. 5월이 다 지났습니다. 베란다에서도 제일 햇볕이 잘 들고 오래 머무는 곳, VIP석에 놓아 주었는데도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해 아름답던 모습에

대한 기대가 점점 큰 실망으로 변해갑니다. 매스컴에서는 대형사건,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피해를 입었다고 뉴스를 토해내는데, 내 마음은 그저 이 작은 화초를 향하고 있으니 이래도 되는지 생각하며 죄책감마저 듭니다. 이런 생각이 다른 곳으로 향해야 하지 않을까 자문자답합니다. 5월 중순이 지나 하순이 될 무렵, 이젠 미련을 버리고 다른 화초로 분갈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하려하니, ‘아니’하며 미련을 갖게 합니다.

요즘 민이, 준이 엄마도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정신없는 것을 보거나보다 더 열성 마니아가 된 것 같습니다. 하잘것없는 화초들로 집안에 발디딜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왜 이런 말 있지요? ‘죽은 자식 ×× 만지기’라고... 이러기를 며칠 또 지냈습니다. 6월 5일 오후, 전날 치과에서 대공사로 인해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설마하며 그놈을 들여다봤더니, 이게 어찌된 입니까? 눈을 비비고 봤는데 조그맣게 싹이 나와 있는 거예요. 뽑아 버리고 다른 화초로 대신하려 했는데, 기다림의 느낌이 이런 걸까요?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 소리에 애 엄마는 “무슨 일이에요? 어제 물을 주며 봤는데도 모르겠더니 말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식물 하나 싹이 틈 일에 이다지도 흥분하는데 인간사에는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겠습니까.

문득 요나 얘기가 떠올라 요나서 말씀을 봅니다. 보잘것없는 식물 하나 싹이 돋움에 만세 하였으니 사람 살리고 도우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 어떤 소리를 외칠는지요.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 버린 이 식물을 내가 이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십이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4:10-11)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화초 속에서도 주님 음성 듣게 하시니, 적은 일일 망정 주님 일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듣게 하시니.

환경실천수칙

- 바쁘게 경쟁하는 삶보다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 물 부족국가인 이 땅에서 오염되어 죽어가는 물을 살리기 위해 물 사용을 줄이고 합성세제 사용을 억제한다.
- 풍성한 식탁보다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로 간소한 생명의 밥상을 차리고 성만찬을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감사히 먹되,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보다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절약, 단순, 소박한 생활로 생활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 농업기반이 무너지고 농촌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땅에서 생명농법으로 자라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다.
- 정부의 잘못된 환경정책, 무분별한 국토개발을 비판, 반대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 교회는 환경선교, 환경주일지키기, 환경학교 등을 통한 환경교육실시로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억제, 자가용 이용자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등 자발적으로 환경실천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환경기관이 되도록 노력한다.
- 교회는 지역주민을 위한 재활용장터, 유기농산물 직거래장터, 환경정보제공 등에 주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열린 환경교육공간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한다.
- 교회는 지속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 자연을 돌아보고 이웃을 보살피는 상생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할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전 우주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도록 노력한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 담임목사 : 김기석 | 부담임목사 : 김재홍 | 원로전도사 : 박옥식 |
|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 | |
|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 | |
|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 | |
|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 | |
| 지휘 : 윤주원 안홍숙 |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 |
|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 도서관장 : 박해경 | |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재흥 최희영 윤정덕 구성실 김근종 정옥영 김용길 최영혜 김준호
 곽혜자 김훈동 유경순 김희진 박홍재 배삼순 권호진 백묘현 서원금
 안종일 정현주 윤미경 윤수진 김성한 조영순 이재문 송의섭 김수진
 김정애 강순배 이광용 형인순 전세종 김정민 배재선 곽상준 최경미
 무명

월정헌금:

김미순 김영순 김종문 지명주 문금석 박준희 이기분 서정순 김정섭
 이봉배 이은자 이인웅 오송경 이정은 정두리 조순덕 하현철 최성애
 김문주 최윤희 박인혁 박석희 조항미 나승철 배연선 이재훈 송동준
 김진경 이주현 김명순 이교영 김승현 김수진 무명

감사헌금:

정복순 문복순 유병선 정현선 배부례 전 용 고유비 전세종 김정민
 오정숙 전성오 박희성 허신열 강금연 무명2

녹색꿈헌금:

김중수 이순정 이증자 김창경 이정은 최경미

생일헌금:

허준호 안종일 정현주 배삼순

| 속 명 | 인 도 자 | 속 장 | 모 인 곳 | 다음 장소 |
|------|-------|-----|-------|-------|
| 예루살렘 | 장혜숙 | 박성실 | 박영희 | 송임희 |
| 베들레헴 | 노순옥 | 정경례 | 노순옥 | 서정순 |
| 안디옥 | 임정자 | 최경미 | 정복순 | 임정자 |
| 가나안 | 문영혜 | 이명희 | 김명순 | 곽혜자 |
| 갈릴리 | 안정숙 | 진정숙 | 진정숙 | 최희영 |
| 베다니 | 박홍재 | 곽권희 | 오정숙 | 송의섭 |
| 시온 | 박효선 | 허정윤 | 홍복선 | 임미심 |
| 엠마오 | 최숙화 | 권미정 | 심 | 최숙화 |
| 에베소 | 이순정 | 김금순 | 이순정 | 강순배 |
| 빌립보 | 이형숙 | 권미숙 | 권미숙 | 구성실 |
| 가버나움 | 안홍숙 | 오현정 | 안홍숙 | 정현주 |
| 나사렛 | 정영선 | 백혜숙 | 최현옥 | 백혜숙 |
| 갈라디아 | 유경순 | 김수진 | 유경순 | 박옥식 |
| 고린도 | 이영란 | 이증자 | 이영란 | 박미영 |
| 다메섹 | 박혜경 | 최영혜 | 최영혜 | 박혜경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환경선교주일** : 오늘은 감리교회가 환경선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장터와 환경 사진 전시회, 친환경 비누 나누기 행사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2. **동호회** :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입니다. 라인댄스 동호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1시 30분에 세미나실로 오십시오.
3. **백년사 편집위 모임** : 교회 백년사 편집위 모임이 오후 12시 30분에 사랑방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4. **수양회 준비 모임** : 수양회 준비 모임이 오후 1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5. **은총의 숲 생태기행** :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주관하는 몽골 ‘은총의 숲’ 생태기행이 7월 26일(월)부터 31일(토)까지 있습니다. 참가비는 160만원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새교우환영회** : 상반기 새교우환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중고등부실에서 열립니다.
7. **신앙실천** : 환경선교주일을 맞아 음식물 쓰레기 제로에 도전해봅시다.

* 식당 봉사 : 예배소 속 (다음 주 : 예배소 속)

* 설거지 봉사 : 정희은 김기성 윤석철 (다음 주 : 남창모 전충길 김세진)

* 새교우 : 정선희 (나오미1) 이은주 (6여)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기를 위한 안내

1.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예배실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3. 기도 중에는 출입을 삼갑니다.
4. 휴대 전화는 예배 시작 전에 끕니다.
5. 음식물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집 회 안 내 ◇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 아 부 | 10:50 | 유아부실 | 1부예배 | 09:30 | 교육관 |
| 유 치 부 | 10:50 | 유치부실 | 2부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육관 | 오후집회 | 14:00 | 교육관 |
| 중고등부 | 10:5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년회 | 13:3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